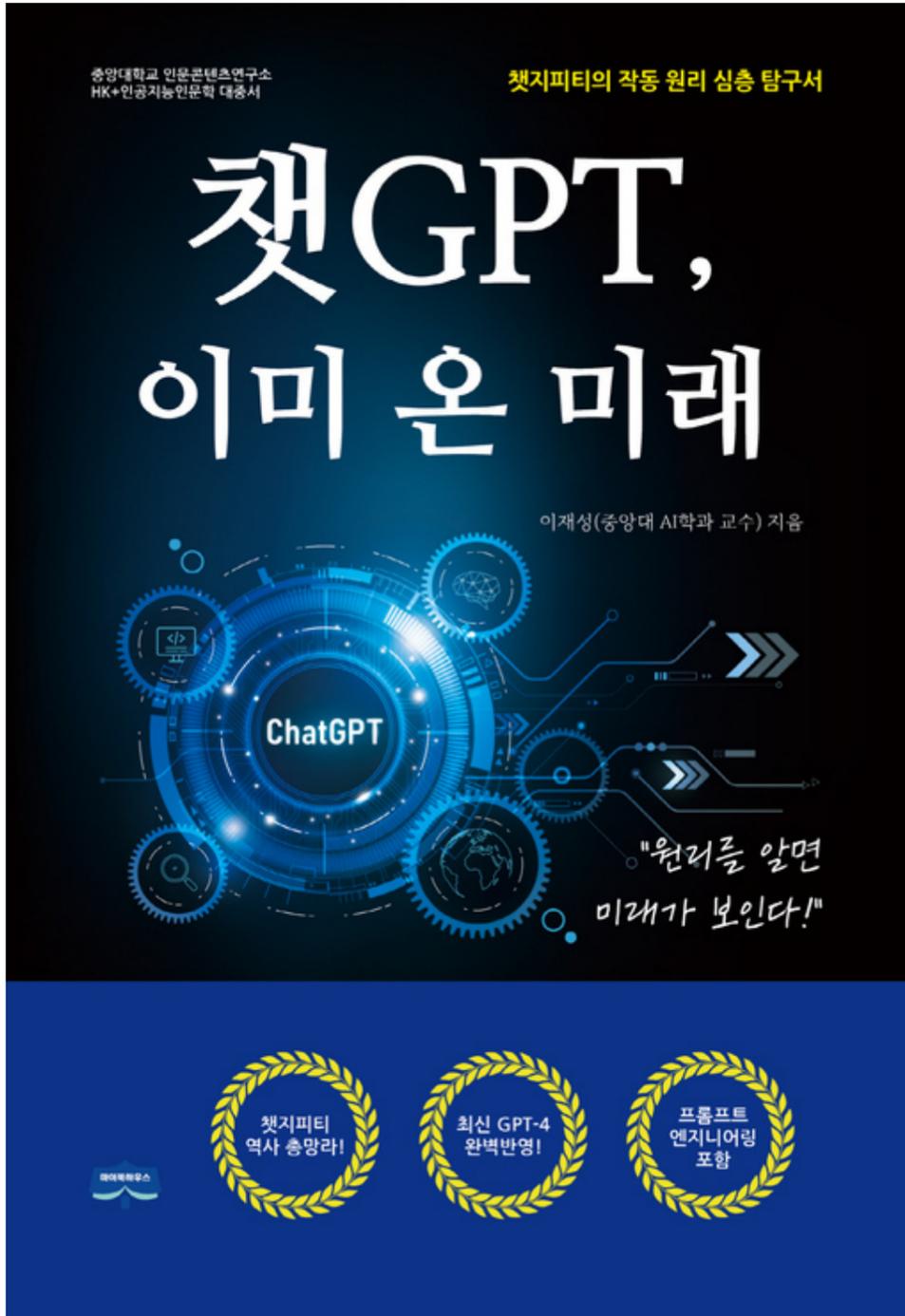


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, '챗GPT, 이미 온 미래' 발간

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| 2023-08-17 09:42:39



'챗GPT, 이미 온 미래' 표지/중앙대 제공

중앙대학교(총장 박상규) 인문콘텐츠연구소가 인공지능인문학 저서 시리즈의 일환으로 '챗GPT, 이미 온 미래'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. 인문콘텐츠연구소는 국내 유일 인공지능과 인문학을 융합한 연구기관이다.

'챗GPT, 이미 온 미래'는 단순 활용방법과 이슈 집중을 넘어 챗GPT의 작동 원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비전공자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는 책이다.

대형언어모델인 챗GPT는 출시 이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, 관련 저술 활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. 다만, 기존 챗GPT 관련 서적들은 챗GPT의 활용방법을 소개하거나 기술적 이슈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.

저자인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 겸 AI공동연구소장은 최신 인공지능 발전 동향과 기술적 이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머신러닝 분야 전문가다.

이 교수와 함께 책을 발간한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인공지능인문학 연구기관이다. 2017년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HK+(인문한국플러스)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인문학과 공학을 아우르는 다학제 간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인문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.

이찬규 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"'챗GPT, 이미 온 미래'를 통해 독자들은 챗GPT의 작동 원리를 심층 탐구하는 경험을 갖게 될 것"이라며 "인문콘텐츠연구소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문학적·공학적 함의들을 다뤄왔다. 앞으로도 인문콘텐츠연구소는 이번 저서 발간과 같이 후속세대를 위해 학술적 성과를 잘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

'챗GPT, 이미 온 미래' 저자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/중앙대 제공